

## 배리 J. 파머 제 2 부회장

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베로라 출신의 배리 파머 씨가 2011년 7월 4-8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94 차 국제대회에서 국제 제 2 부회장에 선출되었다.

그는 부동산회사의 중역이다.

1976년부터 혼즈비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으로 클럽회장, 지대위원장, 사무총장, 재무총장, 지구총재 등 국제협회의 요직을 맡은 바 있다. 그는 다수 위원회의 멤버로 활동했고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2010년 국제대회의 호스트 위원장직을 맡았다.

그의 봉사경력을 인정 받아 국제협회로부터 100% 클럽회장상, 100% 지구총재상, 국제회장상(6회) 및 협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상인 친선대사상을 수상했다. 그는 프로그래시브 멜빈 존스 동지이기도 하다.

그는 라이온스활동 이 외에도 호주 정부로부터 메달, 호주 아동 암 연구 상 및 뉴사우스웨일스의 뇌성환자 센터 상을 수상하였다. 호주 올림픽 때 파이오니어 발런티어로 활약한 바 있고 호주 장애인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.

멜빈 존스 동지인 부인 앤 씨 사이에 3명의 자녀와 8명의 손자를 두고 있다.